

01. 예습한 내용을 질문하기

토론수업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예습으로 자료를 찾고,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자료를 찾게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습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는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호기심의 끈이 생겼을 때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예습을 해 온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자료를 다시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의 단축을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통 크게 아이들에게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학습의 의미가 '배우고 익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인색한 부분이 익히는 시간입니다.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해보는 것이지요. 혼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이 익히는 과정인데 친절한 교사들은 자료를 주고 강의식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과정의 반복이면 교사가 익히는 것이고 학습을 해야 할 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익힐 시간 없는 공부는 공부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는 예습단계 속에 익히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한 번 더 토론을 통해서 익히게 되므로 아이들에게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아이들은 교사와 예습노트를 1차(내용 정리), 2차(최고의 질문을 조사)로 나누어 매번 과제를 내어도 그다지 불평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함께 동참하는 전체토론식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어했습니다. 사회과나 역사과는 지식의 축적이 요구되므로 교사참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2차 과제 없이 1차 내용 정리를 할 때 궁금한 질문에 대해 함께 간단하게 조사해 오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 2차시가 합쳐진 수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차시 수업분량이거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어렵지 않을 경우 1차 예습노트 작성만으로 과제를 내기도 합니다. 즉 학습의 통일된 질문이 아닌 각자 궁금한 질문에 대해 간단히 조사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교사의 수업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단원은 조선이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며 스스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대한 제국 수립을 선포하는 것에 관한 수업입니다.

서울 독립문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독립 협회가 왜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는지 질문하면서 수업을 시작해 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및 각자 구입한 역사책까지 읽고 미리 공부해 오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질문과 이야기 그리고

토론까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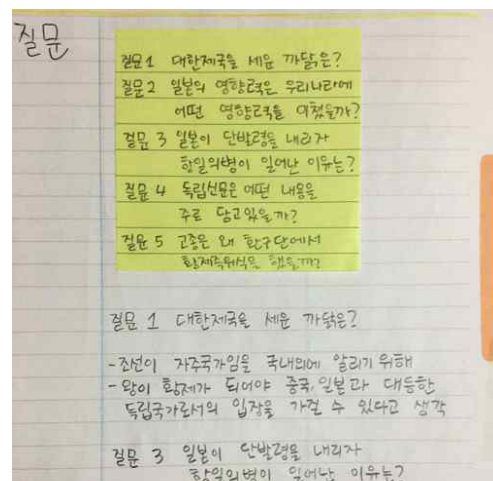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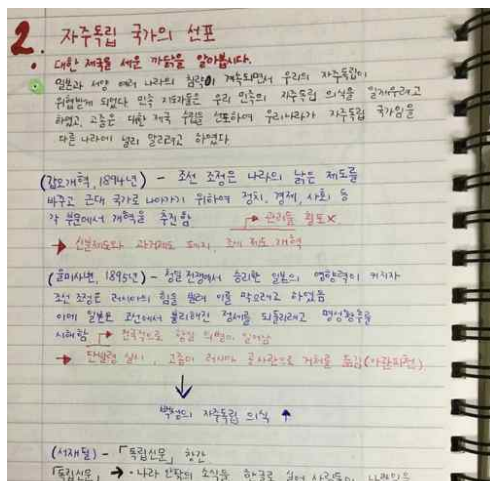
이 차시에서는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대한 제국을 수립을 선포한 것에 우선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친구에게 배우기, 서로교사되기로 진행을 했는데 이 수업방법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경우에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할 활동을 끝낼 수 있습니다.

주제가 무겁거나 배울 내용이 많은 수업에서는 서로교사되기 방법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수업 시간 40분 중 15~20분 동안 친구에게 설명하기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 20~25분 동안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질문 유형에 따라 찬/반토론 등 다양한 방법의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토론모형을 이용하면 더 쉽고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제에 따라 짝 토론, 모둠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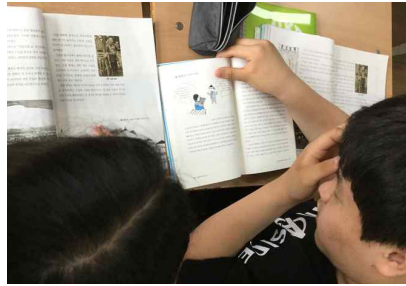
02. 학습 내용 서로 설명하기

가. 학습할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기

이번 차시는 친구에게 설명을 하면서 서로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학습 내용이 많지 않고 비교적 쉬워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배울 교과서 내용을 절반으로 나누어, 요약하며 서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이해한 후 짝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짝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대한 제국 수립을 선포한 배경과 이때를 전후하여 급격한 문물의 수용과 외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한 백성의 갈등을 알아본다. 또 여러 일화를 통해 근대 문물 수용에 대한 백성의 시각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역사적 관점과 해석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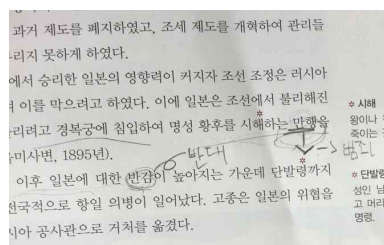


▲ 교과서 이외 역사책 활용

토론 중 담임이 추천했던 '한국사' 관련 역사책을 참고하는 장면입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수업을 하면 할수록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교과서만으로는 그 궁금증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각자 구입한 역사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구입했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나. 낱말의 의미 파악하기

토론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 여러 명이 어려운 낱말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저는 다음부터 토론 전에 낱말의 뜻을 먼저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준 학생들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그 찾아가는 과정 즉 낱말의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을 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합니다. '열강, 확충, 자주독립, 이권 침탈, 만행, 반감, 환구단'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환구단'의 의미를 정**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 학생이 교과서 69쪽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 할수록 학생들이 수업을 더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맛을 보는 교사는 지속해서 이 수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사가 친절할수록 수업의 재미를 빼앗아 갑니다. 내용을 알려주는 친절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잘 질문해주는 친절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친구들끼리 대화하면서 낱말의 뜻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 낱말의 의미 기록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책에 정리하는 습관은 바람직합니다. 교사중심에서 학생중심으로 배우는 수업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겠지요.

다. 학습한 내용 확인하기

친구에게 설명하기, 서로 교사되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맡겨두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용을 잘 연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피드백시간은 사실 교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교사가 필요한 이유이지요. 틀린답을 이야기하고도 그것이 정답인 줄 아는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 동안 짝끼리 배운 내용을 한 명의 학생이 발표하게 했습니다.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다른 학생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보충 설명합니다.

“그런데 갑오개혁은 왜 군대 제도에 대한 개혁만 제외되었을까요? 제가 읽은 한국사 책 80쪽에 의하면 갑오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군대가 강해지면 침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략에 방해가 되는 군사 제도 개혁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다른 학생이 독립협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어떤 단체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자,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독립문을 세운 단체는 독립협회이며, 만민 공동회를 개최한 단체도 독립협회입니다. 방금 김** 군이 발표한 내용은 모두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교사가 학생을 지목하여 발표를 시켰으나, 차츰 익숙해진 이후는 자발적으로 2명이 질문하고, 4명이 보충 설명을 하면서 학습 내용도 확인하고 복습하는 효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발표하는 학급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03. 자유로운 질문으로 토론하기

가. 자유로운 질문으로 토론하기

다음은 질문을 과제로 각자 4가지 질문을 만들고 간단히 조사해 왔습니다. 모둠별 최고의 질문을 하루 전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먼저 질문하여 대화, 토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질문에 따라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었으나 2가지 질문에 대한 대화, 토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단발령은 왜 실시되었을까?>

- 서**: 단발령은 왜 실시되었나요?
- 정**: 조선에서는 상투를 틀었는데, 그것을 자르면 뭔가 자신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웬지 일본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 문**: 한 마디로 말하면 조선의 문화를 수준 낮게 보고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이죠.
- 손**: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투가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 모두: 하하하

- 교사: 일리 있는 의견이네요. 그 당시 조상들은 유교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머리카락 등 부모님께 받은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후 생략)

인상적인 질문이 있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토론 중에는 교과서 내용에서 현재 실생활과 관련지어 토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전체토론의 대화 내용입니다.

<질문: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 과거제도를 왜 폐지했는가?>

- 이**: 교과서 67쪽을 보면 과거제도, 신분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왜 폐지되었는지, 또 완전히 폐지되었는지 궁금해요.
- 정**: 양반과 집권 계층이 있으면 왕의 정치를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신분에 제한 없이 널리 인재를 구하는 장점도 있겠죠.
- 이**: 그래서 완전히 폐지되었을까요?
- 손**: 완전히 폐지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양반, 중인, 상민 등의 계층은 폐지했지만 왕족은 일반 백성과 구별해야 했기에 왕족은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법적으로 신분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 양반, 중인 등 계층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 이**: 아!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좀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요즘도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대통령, 사장, 부장이 있으니까 신분제의 개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실생활과 관련지어 토론을 이어간다.)
- 정**: 최소한 그런 사람은 있어야 되죠. 사장이 없으면 회사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대통령이나 정치 고위층이 없으면 법은 누가 만들지요?
- 서**: 대통령과 정치인이 없으면 법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 김**: ○○ 군, 사장이 없으면 월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교사: 정치인, 사장, 부장도 신분제의 고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 정**: 옛날 신분제도는 위 계층에서는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천민들은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과거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가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개인의 노력으로 높은 직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제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업 마치는 시종이 울렸으나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토론을 이어간다.)
- 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도 평등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죠? 부유층의 학생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되므로 차이가 생깁니다.
- 손**: 또 방금 ○○ 군이 계급(직위)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회사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장이라는 직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 교사: 현재는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신분제도와 비슷한 부

분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군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생각,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토론을 마무리한다.)

-교사: 학습문제를 봅시다. 대한 제국을 세운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왕이 황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 일본과 대등한 독립국가로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한 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발표하며 해답을 찾고 학습목표를 달성한다.)

토론 중 학생들이 빠트린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듣고 다시 질문하여 학생들이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교사는 이끌어 줍니다. 아이들끼리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 대부분 학습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사가 학습목표와 관련된 질문을 해서 마무리하면 되니까 너무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흥미롭고 집중된 수업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보다는 변화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훨씬 더 감동을 줄 것입니다. 수업에 몰두하는 모습과 열정은 여전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고마운 점은 과제도 잘 해 오고, 토론에 자발적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참여도가 낮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 또한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 마음이 조금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